동국대 WISE 선센터, 간화선 집중수행

2월 20~26일 7일간 집중정진
수불 스님 "눈뜨고 온몸 공부"
100명 참여자 화두 상태 유지
처음 수행하는 마음으로 수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선센터가 2월 20일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WISE캠퍼스 선센터 2층 대선방에서 입재했다.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선센터(센터장 유진 스님)가 2월 20일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WISE캠퍼스 선센터 2층 대선방에서 입재했다. 이번 수행은 2월 20일 부터 26일까지 7일간 수불 스님(동국대 불교대학 석좌교수·안국선원장)의 지도 아래 전통 간화선 수행을 현대적으로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불 스님은 입재 법문에서 스승에 대한 믿음과 초심자의 마음가짐을 강조했다. 스님은 "지금은 길 안내자를 믿어야 한다. 봉사가 눈뜬 사람의 말을 믿지 않으면 공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지금껏 해온 수행을 다 버리고, 처음 수행하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한다. 마음을 비우고 온몸으로 공부하라"고 강조했다.

안국선원에서 해온 간화선 집중수행 프로그램은 산사(山寺) 선방(禪房) 스님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간화선을 일반인도 수행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으로 35년의 수불 스님의 노하우가 집대성된 결과물이다. 1989년 시작해 국내외 300회 이상 진행했고 6만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간화선을 통해 전통 선수행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자아성찰을 통해 현대인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보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일상에서도 실천 가능한 간화선 수행법을 탐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법문, 간화선 수행, 수행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수행의 흐름을 이어받아 전통 간화선의 수행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다듬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수행자들은 단순히 좌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놓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며 일상에서도 간화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받아 눈길을 모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과정을 거쳐 100명을 모집했으며, 이 중 30명은 숙박형으로, 나머지 70명은 비숙박형(출퇴근형)으로 참여했다.

유진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선센터장)은 "이번 간화선 집중수행은 한국불교 수행법인 간화선을 널리 알리고, 참가자들에게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한국불교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보급하는 동시에, 간화선의 핵심 이론과 개념을 바탕으로 한 법문을 통해 참가자들이 삶을 깊이 통찰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BBS울산불교방송, 신사옥 이전

2월 21일…이전 개국식 성료



BBS울산불교방송이 개국 17년 만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고 이전 개국식을 개최했다.

BBS울산불교방송은 2월 21일 울산 중구 성안동 백양사 앞 복합문화공간 만디 3층 교육관과 신사옥에서 '이전 개국식'을 봉행했다.〈사진〉

BBS울산불교방송 신사옥은 울산 중구 성안동 복합문화공간 만디 3층에 위치하며, 400m² 규모로 주스튜디오, 제2스튜디오, 조정실, 기계실, 영상편집실,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아침저널 3부'와 '행복한 오후' 등 지역 맞춤형 로컬 프로그램의 생방송 및 제작이 이뤄지며, 유튜브 송출 및 TV 영상 편집제작 등의 뉴미디어 콘텐츠도 제작된다.

이진용 BBS울산불교방송 사장은 "2008년 남구 달동 시대를 거쳐 2025년 중구 성안동 시대를 열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문화행사를 통해 울산 시민과 불자들에게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열반재일 맞아 수행 가치 되새겨

도리카이 국원 차기 후계자 소개



신뇨엔은 2월 15일 종합도량인 응현원과 세계 각국의 정사를 위성으로 연결해 열반재일 법요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날 법요식은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기리는 자리로, 대승불교의 자비 실천 정신을 강조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뇨엔은 〈대반열반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아 법요식에서 순타품을 독송하며,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린 순타의 공덕을 되새겼다. 이를 통해 신뇨엔은 열반의 가르침이 단순한 교리적 이해에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승이타행의 실천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요식에서는 신뇨엔의 후계 구도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도 진행됐다. 이토 신소 원주는 도리카이 국원을 차기 후계자로 소개하며, 신뇨엔의 종단 운영이 안정적으로 계승될 것임을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경선 스님 선화전 '월인청산' 성료

〈月印靑山〉

2월 25일~3월 2일,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선 사상의 본질 붓끝을 통해 형상
선화 80여 점 법문의 형상화 극찬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월인(月印) 경선 스님의 선화전 '월인(月印) 청산(靑山), 일월이 머문 곳에 청산은 푸르구나' 가 개최됐다.

부산 금정문화회관 금샘미술관 제3전시실에서 월인(月印) 경선 스님의 선화전 '월인(月印) 청산(靑山), 일월이 머문 곳에 청산은 푸르구나' 가 개최됐다.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된 이번 전시는 선화를 통해 수행이 예술 속에서 살아 숨 쉬며, 선 사상의 본질이 붓끝을 통해 형상화되는 과정을 탐구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개막식에는 경선 스님을 비롯해 전 중앙승가대학 총장 태원 스님, 대각회 이사장 장산 스님, 통도사 전 전계사 혜남 스님, 도실 스님, 상운 스님, 노암 스님, 도민 스님, 보타 스님, 일호 스님, 범산 스님, 정산 스님, 고담 스님, 자관 스님 등 승가 내빈과 이준승 부산시 부시장, 전호환 동명대 총장, 강창열 금정문화회관 관장 등 지역 예술계 인사들도 함께 자리해 선화전 개막을 축하했다.

경선 스님은 개막식에서 "10년 후 전시를 열 계획이었으나, 수행의 과정에서 이미 많은 그림이 완성되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다"며 "금정산 고당봉을 비롯해 수행 중 마주한 자연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주 스님의 투자 선사 이야기를 인용하며 "조주화상이 기름장수에게 투자선사를 아느냐 묻자, 기름장수는 차 한 잔 값이나 달라고 했다. 이에 조주화상은 '투자의 소문은 들었으나, 그 본질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이는 수행과 예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 본질을 깨닫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님이 수행 중에 그린 80여 점의 선화 작품이 공개됐다. 작품 속 산과 달, 자연의 요소들은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깨달아 온 법문의 형상화로 표현됐다. 먹과 붓을 사용한 선화는 선(禪)의 사유를 담고 있어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다.

경선 스님은 수행과 예술을 병행하며 불법을 전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청남(菁南) 오제봉 선생과 오진(烏辰) 이웅선 선생에게 서예와 문인화를 사사받으며 예술적 기반을 다졌다. 오제봉 선생은 해방 후 청남묵연회 대표와 동명서예원장을 역임하며 부산·경남 지역 서예계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다. 문인화를 사사한 이웅선 선생은 한국적 산수화의 전형을 완성한 청전(靑田) 이상범 선생의 제자로, 전통 문인화의 기법을 계승하며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탐구한 대가였다. 경선 스님은 이러한 전통적 기법을 바탕으로 수행과 예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선묵화를 통해 불교적 사유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왔다.

스님은 범어사성보박물관 초대 관장을 맡으며 불교전통문화의 보전과 발전에도 힘써왔다. 20년 넘게 범어사 성보박물관 초대 관장 소임을 맡으며 불교 문화재 보전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힘써왔다. 범어사 주지로 역임할 당시 신축 범어사 성보박물관을 직접 건립하며 불교전통문화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대학, 수계식 및 합동 졸업식

2월 26일, 33명 수계 받아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이 2월 26일 부산불교교육대학 교육관에서 '을사년 수계식 및 2024학년도 합동 졸업식'을 봉행했다.〈사진〉

이번 행사는 불자로서 신행을 다짐하고, 수행과 계율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졸업생 40명 중 33명이 수계를 받아 불자로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범혜 스님은 "수계를 받는 건 불자로서 길을 가겠다는 다짐"이라며 "불교를 오래 신행했어도 계를 받지 않으면 아직 정식 불자가 아니며, 삼귀의와 오계를 받고 법명을 받아야 비로소 불자로서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행을 실천하고 수행과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711-07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